

## 戴復古의 論詩十絶

車 柱 環\*

七言絶句로 詩를 論한 것은 杜甫(712—770)의 戲爲六絶句가 최초의 시도다. 杜甫는 거기서 당시 사람들이 齊梁에서 初唐에 걸쳐 유행했던 綺靡한 詩風을 경시하는 태도를 徐陵 庾信 初唐 四傑 등을 옹호하는 듯한 어조로 비판하고, 자기와 동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雄豪한 作風을 가진 敬仰할만한 詩人을 찾아볼 수 없다는 투로 은연중에 大詩人을 自負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자기의 作詩態度를 표명했다. 作詩態度를 나타낸 第5首는 다음과 같다.

지금 사람을 박대하지 않고 옛 사람 사랑하며  
청아한 말 고운 句는 반드시 이웃삼는다.  
외람되지 屈原과 宋玉 잡고 나라니 물고가야지  
齊梁의 시인들과 함께 뒷 먼지 구실할까 두려워한다.

不薄古人愛古人，清詞麗句必爲鄰。

竊攀屈宋宜方駕，恐與齊梁作後塵。

杜甫는 결국 이 戲爲六絶句에서 詩人을 批評하고 作詩方法 내지 作詩態度를 천명한 것이다. 그 후 七言絶句로 詩를 論하는 내용이 대체로 杜甫가 시도한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시대가 많이 뒤져 金代 後期에 와서 元好問(1190—1257)이 七言絶句 30首로 詩를 論했는 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論詩絶句라고 부른다. 元好問은 論詩絶句 30首에서 歷代詩人을 批評 論定하는 일을 시도했다. 元好問은 28歲(1217) 때 論詩絶句를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sup>(1)</sup> 한편 元好問과 同時代의 10年 정도의 長輩로 南宋에서 한 때 江湖詩人으로 詩名을 떨쳤던 戴復古(約1167—1250)도 詩를 다룬 七言絶句 10首를 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論詩十絶이라고 부른다. 그는 거기서 주로 作詩態度 내지 作詩方法을 다뤘다. 戴復古가 論詩十絶을 낸 것은 紹定(1228—1233) 初年の 일이었으므로 元好問이 論詩絶句 30首를 낸 것 보다는 10餘년이 뒤진다. 元・戴 二人은 동시대의 사람들이었기는 하나 地域의으로 위낙 北과 南으로 서로 동떨어져 있었으므로 兩者間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教授(文庫), 中國文學

(1) 元氏의 論詩絶句는 遺山先生文集11에 실려 있는데 題下에 “丁丑歲三鄉作”이라는 註가 달려 있다. 丁丑歲는 金의 興定元年(1217)으로 元氏가 28歲되던 해다.

에 交涉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戴復古는 放浪癖이 있어 遠近 各地를 나돌아다녔던 사람이어서 당시 北方에서 文名이 높았던 元好問의 論詩絕句 30首를 볼 機會를 가졌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元好問은 생존시에 이미 大文豪로 숭앙되었고 그의 詩文은 후세에까지도 널리 愛讀되었던 관계로 그의 論詩絕句에 관해서는 많은 註釋과 評說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戴復古는 생존시에 詩名은 있었으나 문학상으로 元好問 정도의 영향력은 없었기 때문에 그의 論詩十絶에 관해서는 그리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약간의 언급은 있지만 註釋이나 評說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元・戴 二人의 論詩絕句는 七言絶句로 詩를 論評하는 방법을 확정시켜 놓은 中國詩論史에서 看過할 수 없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동안 별로 다루어지지 않은 戴復古의 論詩十絶을 살펴 보기로 한다.

戴復古의 生平을 살펴 보면 특이한 데가 있다.<sup>(2)</sup> 그의 字는 式之이고 天台 黃巖 지금의 浙江省 臨海縣 사람이다. 그가 거처하던 곳에 石屏山이 있어 石屏이라 自號했다. 그밖에 그는 質野翁과 充安老人이라는 號를 쓰기도 했다. 그는 名士였던 東臯子 戴敏의 아들이다. 戴敏은 科擧에는 뜻을 두지 않고 詩에 沈潛하여 일생을 보내고도 후회하지 않았다.<sup>(3)</sup> 그가 臨終할 때 復古는 갓난 아이였는데 親友에게 “내 병은 위독해졌는데 자식이 어리니 내 詩는 결국 전해지지 못하고 말테지”하고<sup>(4)</sup> 한숨을 짓고 숨을 걸었다. 復古는 자라서 先父의 志趣를 흠모하여 자신도 과거에는 뜻을 두지 않고 詩에만 專念했고 부친의 遺詩를 수집하기에 힘썼다. 復古는 겨우 10首의 遺詩를 찾아내어 자기 詩集인 石屏集(6卷)을 낼 때 父詩를 맨 앞에 실었다. 이러한 編輯體制는 당시로서는 다소 變則的인 것이었다.<sup>(5)</sup> 이를테면 黃庭堅이 山谷集을 낼 때 그 뒤에 부친의 伐檀集을 附錄으로 부쳤고, 王楙의 野客叢書에도 뒤에다 그의 부친의 野老紀聞을 附錄했다. 이런것이 통례였는데 復古는 父詩가 많지 않아 卷帙을 이루지 못한다 해서 특히 자기 詩集 앞에다 그것을 실었던 것으로 그의 그러한 편집이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復古는 詩의 修鍊을 위해 당시의 名士였던 余元一과 徐似道 밑에서 句法의 講解를 들었고 후에는 大詩人 陸游를 師事했다.<sup>(6)</sup> 그는 또 성질이 慷慨不羈한데다 대단한 放浪癖이 있어 당시 南宋 領域內의 名山大川을 찾아다녔고 각지를 流浪하면서 많은 人士들과 交遊했다. 그의 足跡은 지금의 浙江 廣東 廣西 福建 江蘇 江西 湖南 諸省에 두루 미쳤고, 梅嶺 廬山 五老山 蒼梧山 등에 올

(2) 戴復古의 傳記는 宋史翼29와 宋詩鈔의 石屏詩鈔 첫머리에 실려 있다. 그리고 四庫全書總目161 石屏集條에 그의 生平에 관해 言及이 있다.

(3) 宋詩鈔 石屏詩鈔 앞에 東臯詩鈔가 있고 그 첫 머리에 戴敏의 略傳이 있다.

(4) 東臯詩鈔: 吾病革矣而子幼, 詩遂無傳乎?

(5) 四庫全書總目 161 石屏集條 참조.

(6) 余元一의 字는 景思, 號는 雪巖, 仙遊(福建省 莆田縣)人으로 朱熹의 門人, 宋元學案 48, 49 참조. 徐似道의 字는 淵子, 號는 竹隱, 天台(浙江省 臨海縣)人으로 范成大的 知遇를 받았고 秘書少監을 지냈다. 南宋館閣續錄 7·9 참조. 陸游(1125—1210)의 字는 務觀, 號는 放翁, 越州 山陰(浙江省 紹興縣)人, 才氣가 超邁하고 詩를 잘 썼다. 처음에는 江西의 詩法을 따르다가 그것을 清算하고 清新 圓潤하고 平明한 詩風을 확립하여 一代의 詩宗으로 숭앙되었다.

랐고 彭蠡湖 洞庭湖 淮水 泗水 등에 임했고 晩年에는 지금의 浙江省 黃巖縣에 있는 委羽山 밑에서 餘生을 보냈다. 이렇게 각지방을 遊歷한 것이 그야말로 江山의 도움이 되고 見聞을 넓혀주었다. 그의 高深 奧密해진 詩學에 그런 것이 뒷바침되어 그의 詩는 洗鍊과 圓熟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詩名이 나서 전후 五十年 동안이나 특이한 시인으로 행세하여 朱熹같은 巨儒에게도 찬양을 받았을 정도였으나, 당시 유행하던 詩를 가지고 權門에 통해 출세를 꾀하는 따위의 짓은 전연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지은 詩는 굉장한 분량에 이르렀을 것이지만은 지금 전해지는 것은 500餘首에 불과하다.<sup>(7)</sup> 論詩十絶은 그의 詩集 末尾에 수록 되어 있다.

戴復古의 論詩十絶은 제목이 약간 길어 小序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昭武의 太守 王子文이 매일같이 李賈 및 嚴羽와 함께 선배 한두 사람의 시와 晩唐의 시를 보았다. 그래서 나는 詩를 論한 絶句 10首를 짓게 되었다. 子文이 그것을 보고서는 그리 대단한 이론은 없지만은 그래도 詩를 짓는 사람의 기초지식으로 할만은 하다고 말했다.<sup>(8)</sup>

昭武는 지금의 福建省 邵武縣으로 바로 滄浪詩話로 유명한 嚴羽의 고향이다. 子文은 王桢(約 1195—1254)의 字다. 王桢은 당시 西山先生으로 불리우던 眞德秀(1178—1235)에게 인정되어 弟子로 받아드려져 그 幕下에 있다가 議幕參贊에 任命되어 紹定(1228—1233) 初年에 邵武縣의 일을 攝行하게 되었다.<sup>(9)</sup> 그래서 詩題에서 王桢을 昭(=邵)武의 太守라고 한 것이다. 王桢은 眞德秀의 門下에서 朱子學을 배워 朱熹의 高弟들도 그를 존경하였고 후에 그가 知建寧府로 있을 때 建安書院을 創建하여 朱熹를 奉祠하고 眞德秀를 거기에 配享했다. 그리고 王桢은 詩를 잘하는 것으로도 알려졌고 書法도 歐陽詢의 제통을 끌어 淸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李賈는 字를 友山이라고 하는 데 生卒年代는 확실치 않으나 王桢과 嚴羽보다는 長輩였던 것 같다. 李賈는 江湖詩人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嚴羽(約 1190—1264)는 詩도 지었으나 그는 詩人으로서 보아도 滄浪詩話로 인해 詩論家로서 더욱 알려진 인물이다. 戴復古와는 詩와 人生을 함께 論할 수 있었던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다.<sup>(10)</sup> 戴復古의 論詩十絶은 말하자면 王桢이 주최한 詩文學討論會의 한 成果였다고 하겠다. 滄浪詩話에 附錄되어 있는 答吳景仙書에서 嚴羽는 李賈와 만나 詩를 論한 사연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앞서 李友山을 만나 古今人의 詩를 논했는데 내가 미세한 데까지 辨別 分析하는 것을 보고 그는 번번이 격찬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詩를 論하는 것은 那吒太子가 벼를 발라내서 아비에게 돌리고 살

(7) 嚴羽의 送戴式之歸天台山歌에 “付我新詩五百首”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가 지은 詩가 지금 전해지는 500餘首보다 훨씬 많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8) 昭武太守王子文, 日與李賈. 嚴羽, 共觀前輩一兩家詩及晩唐詩, 因有論詩十絶. 子文見之, 謂無甚高論, 亦可作詩家小學須知. 여기서의 宋詩鈔本에 따르기로 했다.

(9) 宋史 420 本傳 참조.

(10) 送戴式之歸天台山歌의 다음 구절을 보아도 그점을 짐작할 수 있다: 手持玉杯酌我酒, 付我新詩五百首. 共結天邊汗漫遊, 重論方外雲霞友. 海內詩名今數誰, 群賢翕奮爭相推. 胸襟浩邁氣蕭爽, 豁如洞庭並澤月.

을 발라내서 어미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友山은 철저히 同意하는 뜻을 나타냈다.<sup>(11)</sup>

嚴羽와 李賈의 이러한 詩의 討論도 같은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南宋에 들어와서는 北宋 末期에 시작된 江西詩派의 作風이 詩人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江西詩派에서는 黃庭堅을 宗師로 받들어 그가 내 세운 詩法에 따르기에 골몰하고 黃庭堅과 陳師道 같은<sup>(12)</sup> 當代 詩人들의 詩에서 모범을 구해 技巧과 雕飾을 일삼고 하여 姑息의인 詩風을 釀成했다. 그런 詩風에 대한 반발로 南宋에서는 한 때 四靈詩人이 나와 韻致와 才性이 살려진 詩를 써내기에 힘썼다.<sup>(13)</sup> 또 그 어느 詩派에도 속하지 않는 江湖詩人들이 나와 江西와 四靈의 장점을 취하고 그 단점을 배제하는 새로운 詩風의 개발을 추구했다. 李賈와 戴復古는 다 이 江湖詩人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한편 嚴羽는 禪家の 論法을 응용한 詩論을 전개하여 妙悟와 興趣를 내세우고 李杜를 주축으로 하는 盛唐詩를 最上乘으로 받드는 등 하는 견해를 밝혀 江西 四靈 江湖 등 諸派를 비판하는 입장을 堅持하고 있었다. 당시 戴復古는 六旬이 넘은 老詩人으로 壯年期에 있던 嚴羽의 詩論도 傾聽하여 다소 취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서 論詩十絶 가운데는 嚴羽의 詩禪論法을 받아드린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의 것이 1首 들어 있다.

詩는 시대 따라 起伏 지으며  
風과 騷(의 作風) 강그리 변해버리고 晚唐에 이르렀다.  
은 세상 詩 읊으면서 李白과 杜甫 추대하지만  
같은 시대 詩人 중에 陳師道와 黃庭堅이 있는 줄을 모른다.

(一)：文章隨世作低昂，變盡風騷到晚唐。

舉世吟哦推李杜，時人不識有陳黃。

文章은 여기서는 詩의 뜻으로 쓰였다. 세상 사람들은 500年을 헤아리는 盛唐 때의 詩人인 李白과 杜甫는 대단스럽게 받들면서 같은 宋代의 詩人인 陳師道와 黃庭堅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江西詩派에서 추대하는 領袖詩人에 대한 世間の 인식이 貶抑함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戴復古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江湖詩人으로 指稱되던 그가 陳黃 2人의 詩法 내지 詩風을 그대로 좋아하고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마치 嚴羽의 詩論을 못마땅해 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滄浪詩話에서 嚴羽는 李杜를 가장 理想的인 詩人으로 받

(11) 余嘗讀李友山論古今人詩，見優劣析毫芒，每相激賞。因謂之曰：“我論詩若那吒太子，析骨還父，析肉還母。”友山深以爲然。

(12) 黃庭堅(1045—1105)의 字는 魯直，號는 山谷，洪州 分寧(江西省 南昌縣)人으로 처음에는 蘇軾의 門에 놀았으나 후에는 蘇黃으로 並稱되고 東坡와 文名을 다투기도 했다. 詩詞에 걸쳐 東坡와는 대조적으로 萎縮 謹愼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陳師道(1053—1101)의 字는 無己，號는 后山，彭城(江蘇省 銅山縣)人으로 詩名이 있었고 특히 心血을 기울여 詩를 다진 것으로 유명하다.

(13) 南宋 때의 永嘉(浙江省 永嘉縣)에 살던 네 詩人：徐照(字 道暉，一字 靈暉)，徐澣(字 文淵，一字 致中，號 靈淵)，翁卷(字 續古，一字 靈舒)，趙師秀(字 紫芝，號 靈秀)。徐照가 그 領導者였다. 이들은 晚唐詩風을 숭상하여 詩의 雕琢에 신경을 썼다.

들었다.<sup>(14)</sup> 그리고 黃庭堅은 蘇軾과 한데 묶어서 唐代的 忠厚한 詩風을 변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돌리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sup>(15)</sup> 陳師道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戴·嚴 두 사람은 교분이 두터웠지만 詩에 대한 견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古今에 걸쳐 胸度가 長江과 黃河 같이 넓고  
재주는 諸公보다 열배도 더 뛰어난다.  
가끔 詩를 가지고 우수개로 삼았거니와  
그런 詩體가 사람들을 얼마나 그르쳤는지 모르겠다.

(二) : 古今胸次浩江河, 才比諸公十倍過。

時把文章供戲謔, 不知此體誤人多。

人名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여기서는 蘇軾을 論評하고 있다. 東坡는 胸度도 대단히 넓고 才氣도 類例없이 뛰어난 人物이어서 그점에서는 존경할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東坡의 詩風은 謹嚴하지 못하고 誠實性이 缺如되어 있어 취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東坡의 그러한 詩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져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詩를 모르고 邪道에 빠져들게 하여 결국 東坡는 詩道를 그르친 큰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論調다. 黃庭堅의 詩法을 숭상하던 戴復古였으므로 蘇軾의 활달한 詩風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더러 그것을 비판해야 했던 것이다.<sup>(16)</sup> 嚴羽도 戴復古와는 입장이 달랐으나 역시 蘇軾의 詩風을 峻烈하게 비판했다.<sup>(15)</sup>

詩에서 옛 사람 알아보니  
詩人의 氣象으로는 雄渾를 존중한다.  
까고 다듬는 것 너무 지나치면 재치로 詩를 해치게 되고  
質朴하고 拙直함에는 오직 존스러워 질까 두려워해야 한다.

(三) 曾向吟邊問古人, 詩家氣象貴雄渾。

雕鏤太過傷於巧, 朴拙惟宜怕近村。

戴復古는 詩에 雄渾한 氣象을 살려야 함을 밝히고 있다. 詩에 의식적으로 氣象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江西詩派 이래로 詩法을 따지는데 있어 詩에 氣象을 살리는 사항이 考慮되었던 것이다. 蘇軾의 詩風을 좋아하고 黃庭堅의 詩法을 멸시한 金の 王若虛(1174—1242)가 氣象과 格律을 비웃은 詩話가 있다. 참고삼아 그 부분만 옮겨두기로 한다.

山水를 그리는 자는 나무 하나 돌 하나를 바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구름과 안개가 아득한 것에 부쳐서 그것을 氣象이라고 하고, 詩를 짓는 자는 멍하니 어둡고 편벽하니 멀어 題目에 따라 찾아보아도 무엇

(14) 滄浪詩話 詩辨: 詩之極致有一, 曰入神. 詩而入神, 至矣, 盡矣, 蔑以加矣. 惟李杜得之. 他人得之蓋寡也. 그 밖에도 嚴羽가 李杜를 尊崇하는 뜻을 나타낸 말은 滄浪詩話 도처에 보인다.

(15) 滄浪詩話 詩辨 “近代諸公云云” 이하 참조.

(16) 江西派에서는 東坡를 비판하여 그의 詩風을 배척했다.

(17) 津南遺老集 39 詩話 中 東坡云論畫條: 畫山水者, 未能正作一木一石, 而託雲煙杳靄, 謂之氣象. 賦詩者, 茫昧僻遠, 按題而索之, 不知所謂, 乃曰格律貴爾. 一有不然, 則必相嗤點, 以爲淺易而尋常.

을 말한 것인지를 모르게 해놓고는 格律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쩌다 그렇지 않은 것이 나오면 반드시 비웃어 지적하여 쉽고 평범하다고 한다.<sup>(17)</sup>

字句의 雕琢은 過度한 것만 경계하였고 반대하지는 않았다. 質朴하고 拙直한 점도 존스럽지 않을 정도에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詩를 그럴듯하게 다듬어내야 한다는 의식이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構想力이 神같은 변화가 생겨나고  
 붓 끝에 힘이 있으면 縱橫으로 내두르게 된다.  
 자기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게 하여야 하고  
 절대로 남의 발길을 따라가는 일 피할 것이다.

(四) 意匠如神變化生，筆端有力任縱橫。

須教自我胸中出，切忌隨人腳後行。

意匠은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뜻으로 지금의 構想力과 비슷한 말이다. 詩에 變化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構想力이 빈틈없이 빠르게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詩에는 縱橫으로 내두르는 말하자면 거드러거리는 氣勢가 살려져야 한다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筆力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構想力이나 筆力도 양성해야 된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自我의 胸中에서부터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詩想이 詩에 살려져야지 남을 모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奪胎換骨이니 點鐵成金이니 하여 古人의 詩句나 詩想을 자기것으로 變造하는 詩法을 가진 江西詩派의 경우에는 한가지 自警策이라고 한 것이다.

본성에서 우러나는 정감 쏟아내는 것 내 일로 삼을 것이지  
 경치를 못떠나함은 아이들 장난과 같다.  
 名詩의 語句로 된 詩는 다시 없이 기묘하다 하여도  
 인간에 쓸모 있는 詩는 아니다.

(五) 陶寫性情爲我事，留連光景等兒嬉。

錦囊言語雖奇絕，不是人間有用詩。

性情은 中國詩論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다. 性情은 일반적으로 本性에서 우러나는 가식이나 조작이 없는 情感으로 이해되고 있다. 性情의 面을 써내는 데 置重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光景은 아름다운 경치다. 寫景詩도 中國詩의 한 傳統을 이루고 있으나 性情面이 무시된 단순한 花鳥風月의 描寫에만 始終하는 것은 幼稚하게 여긴 것이다. 詩의 抒情性을 강조하는 復古風의 論調를 받아드린 것이라 하겠다. 錦囊言語는 기왕에 지어진 名句를 엮어서 만들어낸 詩를 말한 것이다.<sup>(18)</sup> 그런 詩는 奇妙하기는 하겠지만 詩로서의 참된 意義는 없다는 見解다. 남의 詩句들을 그대로 모아서 만든 詩를 集句라고 한다. 記憶力이 좋은 사람들이 곧잘 하는 遊戲詩

(18) 錦囊은 晚唐詩人 李賀가 詩를 지어 비단 주머니에 넣고는 했다는 故事에 부쳐서 쓰여진 말이다.

다. 黃庭堅은 集句를 가장 싫어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데, 그는 심지어 集句를 百家衣라고 비꼬기까지 했다.<sup>(19)</sup> 그러나 그의 點鐵成金 奪胎換骨 등의 詩法도 남의 詩句를 이용하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錦囊云云은 대체로 그러한 언저리를 비판하는 뜻으로 한 말이라 여겨진다.

방랑하면서 나라 근심한 杜陵의 영감  
感遇詩로 시대를 슬퍼한 陳子昂  
요즈음엔 가을철의 학 소리 들리지 않고  
마구 우는 매미 무수하게 기운 해에 시끄럽다.

(六) 飄零憂國杜陵老，感寓傷時陳子昂。

近日不聞秋鶴唳，亂蟬無數噪斜陽。

杜甫와 陳子昂이 詩에 憂國傷時하는 뜻을 읊어낸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戴復古는 그러한 詩를 가을철의 鶴이 뽑아내는 소리에 견주었다. 그는 자기 시대에는 詩人은 雜多하게 많지마는 보잘 것 없는 詩만을 大量으로 生産하고 있다고 개탄한 것이다.

詩의 格律 탐구하려면 參禪하듯 할 것이  
그 妙趣는 글자로선 전해지지 않는다.  
그 속에서 잠시 간혀 있어 마음에 깨달음 생겨  
그것이 語句로 나타나면 저절로 超然해진다.

(七) 欲參詩律似參禪，妙趣不由文字傳。

箇裏稍關心有悟，發爲言句自超然。

詩의 妙趣를 터득하는 방법이 禪理를 터득하는 방법과 흡사함을 말한 것이다. 嚴羽의 論法과 비슷한 점이 있다.<sup>(20)</sup> 戴·嚴 두 사람은 詩와 禪을 연결시키는 문제에 관해 격의없는 意見 交換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두 사람의 意見은 調停되어 서로 接近해지기에 이르렀으리라 생각된다. 요컨대 詩의 妙趣는 자신이 一心專力 探究 摸索해서 스스로 터득 해야 한다는 것이다.

詩란 본래 형태가 없어 아득한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온 천지를 망라하여 읊조리는 마음을 발동케 한다.  
때로는 홀연히 사람 놀라게 하는 詩句 얻게 되지만  
마음의 機能 다 움직여도 그런것을 만들어내진 못한다.

(八) 詩本無形在窈冥，網羅天地運吟情。

有時忽得驚人句，費盡心機做不成。

(19) 滄南遺老集 39 詩話 中에 이에 관한 記事가 있다: 山谷最不受集句，目爲百家衣，且曰正堪一笑。予謂詞人滑稽，未足深譏也。山谷知惡此等，則藥名之作，建除之體，八音列宿之類，獨不可一笑耶？

(20) 江湖詩人 사이에서도 그물나름의 詩禪說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江西派에도 詩禪說이 있기는 했다. 各家의 詩禪說 사이의 異同은 복잡하므로 그것에 관한 比較 分析은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詩의 創作性에 관한 意義 있는 意見이 開陳되어 있다. 詩는 形態 없이 詩興을 刺戟하는 모양으로 存在할 뿐인데 詩人이 그것을 捕捉해서 言語로 그것을 形態지워내는 것이라는 見解다. 觸發과 感興 없이 단지 꾸며내는 수단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詩는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이다.

詩 짓는 것은 산문 짓는 것과는 比較도 안되는 것이  
韻으로 한편을 이뤄놓고도 韻이 空虛할까 두려워진다.  
韻을 달아낸 것이 砥柱山과 같아서  
움직여낼 수 없어야 잘 된 걸 알게 된다.

(九) 作詩不與作文比，以韻成章怕韻虛。

押得韻來如砥柱，動移不得見工夫。

戴復古는 詩는 散文과는 比較도 안 될 정도로 짓기 어렵고 그 主要한 理由는 散文에는 필요 없는 押韻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同韻字 가운데에서 詩意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내어 押韻하게 되어 있는데 때로는 同韻字의 制約이나 詩를 짓는 사람의 修鍊 不足으로 詩意에 切實하지 않은 韻字를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砥柱山은 激流속에 우뚝 서서 전연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도저히 다른 同韻字로 바꿔넣을 수 없도록 요지부동하게 韻을 달아야 비로소 잘 됐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詩意 展開와 技巧 活用이 密着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詩作品을 초잡아내는 것은 멧대로일 뿐이라  
詩를 짓기는 쉽고 詩를 고치는 건 어렵다.  
玉은 깎고 다듬는 것 거쳐야 비로소 그릇으로 이룩되는 것이라  
句는 풍만해야 하고 글자는 안정을 기해야 한다.

(十) 草就篇章只等閒，作詩容易改詩難。

玉經雕琢方成器，句要豐腴字要安。

詩作品을 完成시키는 過程을 말한 것이다. 먼저 詩를 초잡아내는 일을 멧대로인 것으로 단정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異論이 없을 수는 없다. 詩의 草稿를 推敲 琢鍊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戴復古는 초잡아놓은 詩의 原稿는 반드시 깎고 다듬어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目標로 句의 豐滿과 글자의 安定을 提示했다. 詩의 草稿에 전연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字句의 雕琢을 必須條件으로 못박는 것도 문제가 안될 수는 없다. 戴氏는 第3首에서 지나친 雕琢을 경계했지만 여기서는 상당한 정도의 改動을 요구하는 雕琢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詩作品의 成篇 過程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가장 具體的인 부분에 속하므로 진지하게 考慮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論詩十絕에는 江西詩派의 詩法이 상당히 뚜렷하게 反映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王堃가 주최한 詩文學討論會의 成果로 要約된 것이므로 자연 眞德秀의 薰陶를 받은 王堃의 道學者的 詩

觀과 詩學에 대단한 自負心이 강했던 嚴羽의 詩禪說을 어느 정도 받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戴復古 자신도 江湖詩人으로서의 詩禪說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道學者와 접촉한데서 얻은 道學者的인 詩觀의 一面도 지니고 있기는 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정되어 論詩十絶이 이루어진 것이다. 第2首에서 蘇東坡의 詩를 배격한 것은 이들 사이에 공통된 의견이었을 것이다. 朱子學派에서는 蘇東坡를 달갑지 않게 생각 하였었고 嚴羽도 滄浪詩話에서 蘇詩와 그 流派의 作風을 排擊했다. 王·嚴 두 사람은 陳師道 黃庭堅을 비롯한 江西詩派의 詩法을 輕視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나 論詩十絶은 戴復古 자신이 썼으므로 그의 所信에 따라 江西와 四靈의 詩法이 다소 조절은 가해지면서도 많이 취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論詩十絶을 본 王栐가 “그리 대단한 이론은 없지만 그래도 시를 짓는 사람의 기초지식으로 할만은 하다”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南宋 末年에 詩學討論會를 통해 이러한 詩論이 七言絶句의 形式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Tai Fu-ku's Ten *Chüeh-chü* of Poetry

Cha, Chu-whan

Tai Fu-ku (ca. 1167–1250), Chiang-hu School Poet considerably well-known in the later part of the Southern Sung Dynasty, composed ten seven-word *chüeh-chü* and explicated various problems of poetry through them. A practice of handling topics of poetry through sevenword *chüeh chü* was attempted at first by Tu Fu (712–770) in *Hsi wei liu chüeh chü*, *Six Chüeh-chü Composed Playfully*. Several centuries later Yuan Hao-wen (1190–1257), who was an outstanding literary figure of the Chin Dynasty and was contemporary with Tai Fu-ku, wrote thirty pieces of such poems in the year of 1217 when he was twenty-eight. Tai published the ten poems sometime in the earlier part of Shao-ting Era (1228–1233) when he participated in the seminar of poetry sponsored by Wang Yeh (ca. 1195–1254) then Prefect of Chao-wu Pre-lecture, Fukien Province.

Participants of the seminar were four in number, namely Wang Yeh, Li Chia, Yen Yü and Tai Fu-ku. Wang Yeh was a beloved student of Chen Teh-hsiu (1178–1235) who was an influential scholar of Neo-Confucianism formulated through the efforts of Chu Hsi (1130–1200), and was also known as a man of poetry and calligraphy. Little is known about Li Chia except that he was a poet of the Chiang-hu School. Yen Yü (ca. 1190–1264) famous author of *Ts'ang-lang shih-hua*, was a native of Chao-wu and admirer of the Sheng-T'ang period poetry centering to the poetry of Li Po and Tu Fu. Yen Yü applied the method of approach to the Zen Buddhism to the way of poetic study.

Through the ten poems Tai Fu-ku mainly tried to reveal the way of producing ideal poetry. It seems that he attempted to accept the Neo-Confucian theory of poetry possibly emphasized by Wang Yeh and Zen Buddhistic approach to the poetry maintained by Yen Yü. Nevertheless, he could not free himself from his adherence to the methodology of poetry worked out by the Chiang-hsi School and retouched by the Ssu-ling School.